

2018
8.12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 사명 감당하는 교회



명성교회 청년부
MYUNGSUNG PRESBYTERIAN CHURCH

www.ums.or.kr | 052-251-7991 | 동구 서부동 113-12 | Myungsung_Church | Myungsung young people community



젊은이 예배

* 는 일어서서 합니다

* 부르심과 고백 사랑해요

* 찬양

* 회개와 예배기도

기도 김동수 장로

광고 김비손 형제

봉헌

* 성경합독 전도서 7 : 13 ~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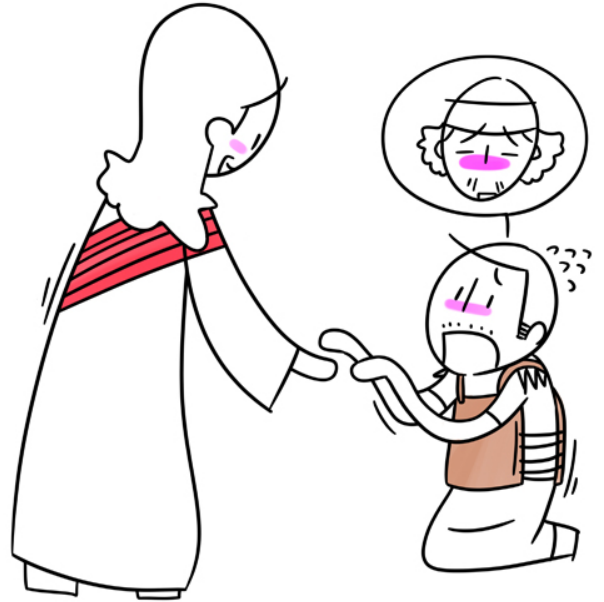
강론 하나님의 행하심/김권수 목사

찬양과 기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파송 및 축도 김권수 목사

축복송

다음주 기도 하재훈 목사



믿음이 증보하게 한다.

Ref: <http://godpeople.com>

헌금 감사

8/5 - 캠프, 수련회 은혜 감사해요 홀로 영광받아주세요 (조성호)
수련회 기간동안 많은 은혜 받고 알게 해주신것 감사드립니다 (강범석)
여름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가득한 시간되게 해주심에 감사(이보라)
수련회를 통해 은혜받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신에서)
축복속에 휴가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속에 휴가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배관수)

후원선교사 : 왕선전 진실로 선교사 - 필리핀 / 권정현 한지숙 선교사 - 태국



공동체소식

예배사역

1.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에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리와서 만남을 준비하는 우리가 됩니다. (지각금지)
*싱글목장연합예배는 1시 40분부터 드립니다.
2. 온세대가 함께하는 하반기 준비새벽기도회 8월 20일(월)-25(토) 새벽 5시(토 6시)본당
 - ① 하반기사역을 기도로 준비하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② 장학헌금을 매일 새벽에 드리고 장학헌금은 새벽기도에 진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청년:10만원, 수여식-25일(토) 예배 시)
 - ③ 매일 새벽시간에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합니다. (목:에벤에셀-싱글)
 - ④ 평원별로 특송을 드립니다
(화:4평원, 싱글, 실버)
 - ⑤ 25일(토) 토요일새벽기도회는 5:30 본당에서 합니다. 새벽기도후에 성경통독수련회가 6시에 302호에서 있습니다.

증거사역

1. 토요일새벽기도회 및 새벽전도
섬겨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7~8월은 방학입니다.
2. 이단, 이슬람, 동성애 등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거부하는 세력들이 교회와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교회가 연합하여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세요.
*이번주는 이단에 관한 글이 실렸습니다.

행사사역

1. 제 5차 성경통독수련회
일시&장소 : 8월 25(토) 오전 6:00 302호
범위 : 전도서 - 예레미야
회비 : 5000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데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비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교제사역

1. 싱글 불링동아리 회원 모집
일시 : 매주 월 저녁 7:30 ~ 8:00 사이
문의 : 강동혁 형제 (010-5382-4282)
2. 파이팅 나라사랑 축제 2018
일시 : 8.13(월) 오후 7:30 울산동천체육관
*출연: 전국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600명

가정교회

1. 목장 VIP
목장 VIP를 작성하시고 목장모임시간에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목자님들은 목장일지를 꼭 화요일 오전까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하반기 삶공부 개강 8월 26일(주일)
*삶 공부 개설 일정을 확인하시고 로비게시판에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삶, 새로운삶 수료 후 다른 삶공부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4. 제 48기 도고기도단 모집
나라와 민족, 교회와 목장, 이웃과 개인을 위해 기도할 도고기도의 용사를 모집합니다
*일정 : 9.2(주일)-12.29(토)
*1층 로비게시판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목자목녀, 주교교사, 임원을 필수입니다.
*도고기도입단예배: 9.2(주일) 오후예배시

8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이원진
12	13	14 김채원	15	16	17	18
19	20	21 윤예원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송승욱 (이지형목장) 성기범 (김채원목장)
배우영 (정효진목장) 정현승 (김채원목장)
고규화 (하재훈목장)
송승엽 (조성호목장)



김미랑 스페인 (최성현목장)



목장 나눔지

5. 교회본당 철판지붕 설치공사

경비: 2천만원

* 교회본당 지붕에 방수페인트가 벗겨져서 새롭게 철판지붕으로 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목적헌금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계좌번호 : 농협 825-01-212896 명성교회

6. 하반기 평신도 세미나에 목자목녀, 예배목자목녀는 꼭 다녀오시기 바라고 목원도 가정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문의 : 손민정 사모)

로비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세미나 일체의 비용은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8월 봉사위원>

헌금위원 + 청소담당 - 김채원 목장
목장특송 - 김채원 목장 (8월 19일)

1. 식사교제
2. 찬양 1곡
3. 아이스 브레이크
4. 광고 및 공지사항 전달하기
5. 목장회비 거두기
6. 올리브 블레싱
7. 말씀나누기 / 전 7:13-18/하나님의 행하심

❖ 설교 요약하기

- 1)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 2)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 3) 삶의 균형을 잡아서 살아야 합니다.
8. 성경문제예습 / 전도서 7:19 - 26 (주보 6면 참조)
9. 삶나누기 / 지난 한주를 살면서 감사한 것
10. 나의 vip 나누기 & 기도제목 나누기
11. 목자의 파송기도

목자의 섬김에 대하여

우리 교회에서 가정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목자들의 섬김 때문입니다. 섬기기 때문에 목장 식구들이 모이고 섬기는 모습을 보며 불신자들이 감동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목자가 섬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섬겨 주기만 바라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꽤 잘 섬겨주는 데도 더 섬겨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새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럴 때에는 정말 답답합니다.

가정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목자는 베풀고 목장식구들이 받기만 하면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선단체입니다. 목자가 임명을 받을 때는 일방적으로 섬길 것을 결심하고 사역을 맡습니다. 그러나 목장식구들이 섬김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가정교회 장점 중 하나는 성도 한명 한명이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섬기고 목장식구들이 받기만 하면 목장 식구들은 쓸모없는 지체가 됩니다. 신약적인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 가정교회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목자만으로는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불신자의 필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목장 전체가 개입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를 목회자의 일이라 생각하여 목회자에게 일임해 버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목사, 목자, 목장식구 전체가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불탈 때 가능합니다. 우리교회에서 1년에 15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모두 같은 열정을 가지고 동역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들 가운데 특출나게 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달되면서 자기 목자도 똑같이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이 가진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자기 목자가 다른 목자와 똑같이 섬겨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교회생활을 시작한지 1년 정도 되면 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목자를 섬길 줄 아는 목장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손바닥 보듯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알고 그것을 행한다면 그가 참된 지혜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엉뚱한 계획을 세우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요셉은 지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미리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셉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감옥에 까지 갇혔으나 하나님이 주신 꿈과 뜻을 믿었고 그것을 인내함으로 견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가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그는 바로의 꿈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알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인간이 바꿀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둘째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또 곤고한 날도 주십니다. 이 두가지를 인생에서 병행해서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형통한 일만 일어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곤고한 날만 계속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형통한 날이 되게 하실지? 언제 곤고한 날이 다가올지 인간은 알수가 없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요셉은 어릴때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므로 인해서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17살에 그는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는 갑자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노예생활도 억울해서 언제 노예생활을 청산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됩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년후에 그를 감옥에서 희안한 방법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형통의 손이요 하나는 고난의 손입니다. 이 두 개의 손으로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언제 형통하게 될지 언제 고난이 올지 인생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여 지는 것입니다.

셋째 삶의 균형을 잡아서 살아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지나치면 못자람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피 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전도자 솔로몬이 인생을 바라볼때에 참 기이한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의롭습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오래살고 복을 누리는 것이 합당한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의인이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면 스스로 패망할 수 있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미련하게 되면 기한전에 죽을 위험에 직면합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어리석은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악독한 마음을 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오래 품어서는 안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우리가 미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나친 고집을 부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의 이 놀라운 전도를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사람이 결코 바꿀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시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를 알수 없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의롭게 되려 하거나 지나치게 지혜롭게 되려 하거나 지나치게 악을 행하거나 지나치게 미련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Memo

성경문제 (전도서 7:19-26)

1.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가운데 있는 열명의 ()보다 더 능력있게 하느니라

정답:

2.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정답:

3.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정답:

4. 마음은 올무와 그물같고 손은 포승줄 같은 여인은 ()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정답:

< 목상이 필요한 성경문제 >

●지난주 문제해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인간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의롭지 못한 모든 사람을 정죄할 가능성이 많고 자기의로 교만해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자신의 부패와 실수가 드러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혜를 가졌다고 하나 그 지혜대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으므로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간의 의로움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겸손함을 배우고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으므로 역시 겸손함을 배우게 되므로 균형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이번주 성경퀴즈

내가 스스로 지혜자가 되려고 할때에 지혜가 나를 멀리한다는 23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2018년 하반기 양육 신청표

※ 삶 공부를 수강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과목과 시간을 확인하여 "신청자"에 이름을 기록해 주세요.

※ 8월 26일 주일 상반기 양육 개강합니다.

과목	시간	강사	장소
제 20기 생명의 삶	주: 오후 3시	김종혁	당회실
	화: 저녁 7시	김종혁	당회실
	토:저녁 5시(싱글)	김권수	301
제 19기 새로운 삶	주: 오후 3시	김영창	새가족실
	화: 오전 10시	이재석	501
	화: 저녁 7시	김권수	예준실
제 13기 경건의 삶	화: 저녁 7시	최영숙	404
제 5기 부모의 삶	화: 오전 10시	김희숙	401
제 8기 기도의 삶	화: 저녁 7시	성영순	301,302
제 9기 하경의 삶	화: 오전 10시	정미연	새가족실
제 12기 말씀의 삶	화: 오전 10시	손현정	408
제 10기 어린이전도 폭발	토: 오전 10시	김희숙	402
제 15기 전도의 삶	화: 저녁 7시	정미연	505
제 30기 LMTC	목: 저녁 7시 20분	손현정	내일교회
제 10기 유니게 학교	목: 오전10시 30분	성영순	303

목장소개

김권수 초원



김권수 목장

손민정 김유진 정희영 김대홍 권순석
안미라 오재근 이보람 안승혜 함동재
기도후원 : 천강민 이정희(몽골)



최성헌 목장

김진실 이주희 박현지 진영우 김철호
이상철 남영주 김선호 김미랑 이귀진
정수진 최윤지
기도후원 : 강희열 노성희(필리핀)



김재원 목장

강범석 박덕호 주재혁 윤예원 전지훈 최예진 신에서
최지현 김유진 김민정 정현승 홍성원 성기범 김주혜
박종휘 조석호 김훈도 오재욱 정찬해 조형리
기도후원 : 강형석 김수희(태국)



조성호 목장

유재민 전예리 남현규 류진주 송승엽
정지우
기도후원 : 양은희(캄보디아)

박효성 초원



박효성 목장

이보라 심주석 권현구 최은미 전의원
손성덕
기도후원 : 박노석 김영희(필리핀)



배상진 목장

정예원 김비손 이준원 김진웅 고성범
오대성 이원진 하혜민
기도후원 : 권정현 한지숙(태국)



배관수 목장

이진희 조지훈 이지훈 김태형 김세영
김경성 추미진 김지인 신준영 박혜영
문단비 홍다해
기도후원 : 정창연 이복환(터키)



고성신 목장

이보라 방성현 유혜진 정소라 조성은 이정인
박경민 고은섭 이보람 장용환 김신혜 김연이
조현지 임시연
기도후원 : 임석일 정현진(라오스)

심기욱 초원



김진우 목장

김유래 백은진 인재인 최광현 하창수
정희은 손미혜
기도후원 : 이겸손 은민어(중국)



하재훈 목장

정다솔 김하늘 강동혁 이정문 박예원
고규화 류아영 심예진
기도후원 : 두평 선교사(중국)



정주은 목장

송승욱 김태형 장준원 김찬양
기도후원 : 하은규 박은진(필리핀)



정호진 목장

이준영 배우영 김효원 김지수 이지형
최성은 성기환 최지우 오예림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07:00 2부 09:00
3부 11:00
오후예배 13:30 대예배당
청년부 주일 13:40 / 비전 302호

청년기도회 월 셋째 주 수요일 20:30
지하 찬양대실

토요새벽기도 매주 토요일 6:00
대예배당

처음 오셨나요?

싱글평원
안내

조성호 목사
010.9450.0212

예수님이 궁금하신가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김권수 목사
010.9465.3747

싱글이 되시려면?

주안에
우린하나

전예리 자매
010.xxxx.xxxx

새 생명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손민정 사모
010.6391.3737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싱글평원
상담

김권수 목사
010.9465.3747